

보성 지역개발·관광 인프라 구축 탄력

다향 녹차센터·해양 휴양지 조성 등 6개사업 유치

내년부터 국비 1,100억원 투입 획기적 발전 기대

보성군이 국비가 투입되는 신규 사업을 대거 유치해 해양 종합휴양지 조성 등 지역관광 인프라 확충 및 지역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보성군은 ▲다향 녹차센터 건립 ▲해양 종합 휴양지 조성 ▲산림 생태단지 조성 ▲보성군 글로벌 표준 기상관측소 유치 ▲녹차 안전분석실 설치 등 국비가 투입되는 6개 사업을 신규 유치했다.

이들 6개 사업에는 내년부터 1천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지역 개발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중해 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은 국가적으로

내년도 세입예산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기획재정부와 사업 관련 부처를 수시 방문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한 전방위 노력을 기울여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회천 북재 인근에 설치하게 될 다향 녹차센터는 3년간 200억원을 투자해 전망 타워와 관광 안내실, 역사관 및 홍보관이 들어서는 지역 랜드마크이자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 명소가 육성될 계획이다.

회천 울포리 일원에 들어설 해양종합 휴양지 조성은 5년간 40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

게 된다.

응지면 대신리와 용반리 일대 산림생태 체험 단지 조성사업은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천년의 숲 테마별 산림 학습장 조성을 목표로 5년간 27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득량면 예당리에 보성군 글로벌 표준 기상관측소를 유치해 5년간 1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청사 신축 및 최신 기상관측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각종 재난 예방 등 군민의 재산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녹차를 이용한 고품질 발효차 개발 등 보성 녹차와 관련된 사업의 국가지원계획 반영으로 소규모 녹차 재배농가에 다양한 지원이 가능케 됐다.

보성군 관계자는 “국비지원 신규 현안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에는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보성군의 역동적인 모습을 새롭게 보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선상근기자 sun@



구례 군민 건강 자전거 달리기 대회 에너지 절약과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구례 군민 건강 자전거 달리기 대회'가 지난 9일 구례 실내체육관 일대에서 개최됐다. 이날 서기동 구례군수와 자전거 동호인 300여명은 실내 체육관→중앙로→문척면→실내체육관을 왕복하는 6km 코스를 완주했다. /동부취재본부=김동호기자 dhkim@

여수시 세계불꽃대회 “고민되네”

저탄소 도시 이미지와 배치...체전 개막식 불꽃놀이 안해

여수시가 전국에서 처음 열리는 세계불꽃경연대회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다음 달 26일 소호호트경기장에서 세계불꽃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과연 ‘저탄소 도시’를 지향하는 여수 이미지에 들어맞느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불꽃경연대회에는 유럽 2팀, 중국 1팀 등 외국 3팀과 한국 1팀 등 4팀이 참여해 1시간여 동안 불꽃을 바다를 향해 쏘아 올릴 예정이다. 바다 오염 등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바다 오염 등에 대해 정밀한 조사를 하고 있으며, 불꽃경연대회가 우리 시가 지향하는 저탄소 도시와 어울리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세계박람회 분위기를 조성해 축제 분위기를 띄우려는 것이 도 움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과 부산, 포항 등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불꽃축제가 열리고 있으나 불꽃경연대회는 여수가 처음이다”며 “전국에서 불꽃 매니아들이 여수를 방문하게 돼 경제적 효

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 였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10일 열린 제 89회 전국체전 개최식때도 화약발사와 공해를 유발하는 축포·불꽃놀이 대신 물 대포를 쏘았으며 친환경 과일탑·꽃탑 조형물(거북선) 등을 설치하는 한편 ‘탄소를 줄이는 8대 실천과 제’를 선정했다.

또 개최식장에서 ‘얼음 팽관’이 기후 온난화로 녹으면서 지구의 섬들이 잠기는 퍼포먼스를 연출했는가 하면 여수 진남경기장 주변에서는 선수 등이 참가하는 나무심기 운동 을 벌였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순천 낙안읍성 고추 줄 1,395m 기네스 도전

순천시 낙안읍성에 1천395m에 달하는 고추 줄을 만들어 세계기록 인증을 앞두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11일 낙안읍성 성곽에 고추 2만9천37개를 새끼 줄에 연결해 현재 기네스북에 기록돼 있는 369m를 훨씬 넘는 1천395m의 고추 줄을 만들었다. 고추 줄 엮기에 참가한 일부 관광객들은 불우이웃 성금도 기탁했으며 고추는 올 연말 불우이웃들을 위한 김장 담그기에 지원된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장흥~광양간 고속도, 벌교 IC~국도 2호선 구간 4차선으로 확·포장된다

고흥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게 장흥~광양간 고속도로의 순천 방면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보성군 벌교읍 월동 IC와 국도 2호선 구간이 4차선으로 확·포장된다.

고흥군은 장흥~광양간 신설 고속도로의 고흥IC 개설을 관계 기관에 건의했으나 터널과 터널 사이가 800m에 불과하는 등 설치 기준에 미치지 못해 IC개설이 무산됐다.

고흥군은 이에 따라 현재 하루 7천800여대가 통행하고 있는 뱀골재 1.9km 구간을 순형 개량하고 4차선으로 확포장해 질량 IC

와 국도 2호선간 연결을 추진해 왔다.

고흥군은 우선 특별교부세 10 억원을 확보해 뱀골재 순형개량 사업에 대한 용역에 착수했으며 대체 우회도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 8일 군의회와 16개 읍면장, 군 변영회장 등 지역민들에게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뱀골재 순형개량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光州日報 전남동부취재본부
(061-908-8111)
순천·여수·광양·고흥·보성·구례

본부장 김동호 국장
주각중 부국장
박양규 부장
지광현 차장
김은종 차장
김은종 기자
선상근 기자

‘배 농가 도우며 건강도 챙기고’

농협 순천시지부 ‘낙안배 팔아주기 운동’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지부장 정순군)가 낙안배 팔아 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순천시지부는 최근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배 재배농가를 돕기 위해 13일 지부 앞에서 ‘낙안배 많이 먹기 운동’을 펼쳤다.(사진)

정순군 지부장은 “배 소비가 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



여 배 재배 농가도 도울 수 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 일거양 득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여수공항, 민영화 대상서 제외해 달라”

여수상의 등 경제 4단체, 靑·국토부 등에 건의문

여수상공회의소 등 여수지역 경제 4단체가 13일 ‘여수공항을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지역 국회의원에 전달했다.

경제 4단체는 건의문을 통해 “최근 정부에서 공기업을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 중인 공항매각 대상으로 여수공항이 유력한 후보

로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수 지역 상공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와 광양만권 산업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도 여수공항의 민영화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여수권역은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단지인 여수

산단과 올촌 제 1·2 지방 산단, 광양제철소, 광양컨테이너부두 등이 형성돼 전남 동부권의 중추거점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여수 공항이 민영화될 경우 수익성만 강조해 공항 운영의 최우선 방침인 공공성과 안전성이 많이 훼손될 개연성이 높을 뿐 아니라 외국 공항 민영화 사례에서 보듯이 이 용객에 대한 서비스 저하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QUIZ

한국 노스캐스프의 새해문 두었나요?

정답: 1. 새해문, 2. 새해문, 3. 새해문

문의: 061-681-5575

11월 14일(토) 10시~12시

문의: 061-413-2019~2020

광주일보 2008년 10월 14일 화요일

제18188호 13

동부권

보성 지역개발·관광 인프라 구축 탄력

다향 녹차센터·해양 휴양지 조성 등 6개사업 유치

내년부터 국비 1,100억원 투입 획기적 발전 기대

순천 낙안읍성 고추 줄 1,395m 기네스 도전

장흥~광양간 고속도, 벌교 IC~국도 2호선 구간 4차선으로 확·포장된다

여수시 세계불꽃대회 “고민되네”

저탄소 도시 이미지와 배치...체전 개막식 불꽃놀이 안해

“여수공항, 민영화 대상서 제외해 달라”

여수상의 등 경제 4단체, 靑·국토부 등에 건의문

배 농가 도우며 건강도 챙기고

농협 순천시지부 ‘낙안배 팔아주기 운동’

여수공항, 민영화 대상서 제외해 달라